

고대 국가체제의 변화

읍제국가에서 고대왕국으로의 도약

20200422 이수빈

읍제국가에서 고대왕국으로의 도약은 상·주대에서 시행하던 봉건제의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분열되어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면서 진행되었으며, 치열한 국가 간 생존 경쟁이 부국강병을 부추겨 고대왕국이 성립되기 위한 국가 관념과 각종 제도들을 빠르게 발전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상대에서 연합의 지배자는 각 읍제국가의 chief들 사이에서 선출된 리더의 개념으로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고 읍 중심의 분권적인 통치 형태였으나, 제후가 왕의 명에 따라 제사와 정치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읍제국가에 기반한 봉건제를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주왕조는 상나라의 봉건제와 주 왕실을 중심으로 한 종법제를 결합시킨 종법적 봉건제를 시행하여, 왕실과 제후와의 관계를 정치적인 면 이상의 혈연의식을 도입하여 상에 비해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형성하였다. 중앙집권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은 바로 천명사상이었다. 주는 상을 무력으로 정벌한 것을 '포악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를 건국하라'는 천명으로 합리화했는데, 이는 이후 '통치자 개인의 덕에 따라 하늘의 의지가 달라진다'는 사상으로 발전하여 왕권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다. 왕이 그저 연합체의 리더가 아닌, 천하의 유일한 전제적인 지배자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과 주는 읍 혹은 도시국가의 연합체에 불과했다.

혈연관계에 기반한 봉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그 한계가 드러났다. 자손의 자손, 또 그 자손의 자손이 거듭될수록 혈연의식은 멀어지기 마련이므로 왕과 제후 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으며 그 사이 제후들은 독자적인 힘을 길러갔다. 이로 인해 중국은 마치 퍼즐 부서지듯 분열되었고 그 시기를 춘추전국시대라 한다. 춘추전국시대에 각국은 국외로는 상호 경쟁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국내로는 부국강병을 추진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군현제와 관료제, 법치제도를 서로 앞다투어 도입했으며 이는 고대왕국이 성립되는 발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상의 단위로 5일 가족 기준의 단혼소가족이 보편화되었는데, 국가가 제도를 만들거나 시행할 때 예속관계로 묶여 있어 파악이 쉽고 빠르며 전쟁 발생 시 손쉽게 징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형태 또한 개개인의 삶을 넘어 지배층의 이권과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봉건제의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인 군현제가 등장했으며 문화적으로는 제자백가가 형성되어 이 모든 변법 시행을 위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역할도 했다. 전국시대의 각 국가들은 철제 농기구 사용, 우경 등 새로운 농업의 채용, 대규모 개간사업 등을 통해 피지배층의 생활을 안정시켰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 지배 안정과 왕권 강화로 이어져, 국가 간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춘추전국시대는 피지배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배층의 권력 강화를 동시에 이룸으로써 고대왕국 성립을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렇다면 읍제국가가 고대왕국으로 발전한 이후에는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조치들을 취했을까? 고대왕국은 전국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진의 전국 통일 이후부터 당 왕조기에 걸쳐 발전하고 완성되었다고 한다. 고대왕국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시행했을 법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봉건제를 대체할 행정 조직을 만들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행정조직인 군현제가 춘추전국시대에 일부 도입되었고, 진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했다고 한다. 이후 한고조는 군국제를, 한무제는 군현제를 시행했다. 둘째, 춘추전국시대에 법치가 도입된 이후, 법치제도를 계속 발전시켜나갔을 것이다. 실제로 춘추전국시대 직후, 진에서는 매우 엄격한 법치를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율령체제로 체계화되어 당 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왕실 및 지배층의 권력 합리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에서 비롯된 많은 사상들은 이후에 종교 및 학문으로 체계화되었고 이는 지배층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적으로 이용되었다. 한은 유학을 관학화했고, 북위의 왕실은 불교를 후원하고 대형 석굴을 통해 권력을 드러냈으며, 당은 훈고학을 관학화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을 정당화하는 이념의 관학화는 당연히 지배층에게 매우 큰 이득이었다. 또한 이는 유학, 훈고학 등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사회계층을 왕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였다.